

# HOPE

편집부

Mater Immediata (여자 모원장)  
| 3 | General Chapter 2025



## M. 카타리나(나사렛)

총회가 얼마 남지 않았고, 이른바 'Mater Immediata (여자 모원장)'이라는 주제가 자세히 논의될 예정입니다. 저는 이 점에서 두 가지 면에서 축복을 받았다고 느낍니다.

지난 총회 이후, 우리의 모원인 웨스트말 (Westmalle)이 더 이상 모원 (Patre Immediatus)의 임무를 맡을 수 없게 되었고, 우리는 창립 수도원인 솔레일몽 (내으로 전환하여 도미니크 원장님이 이제 우리의 모원장이 되었습니다. 매우 아름다운 경험입니다!

저는 에그벨 (Aiguebelle)공동체를 위해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다른 공동체의 형제들에게 사목적 돌봄을

확대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며, 이곳의 모든 수녀님들 사이에서 수도회에 대한 소속감을 강화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른 공동체에 대한 상급자의 상호 돌봄은 수도원에서는 처음이지만, 지난 3 년 동안 매우 강력한 사건으로 경험했습니다. 저는 에그벨형제들의 개방성과 환대에 감사드리며, 우리 모원 수도원에도 감사드리며 모든 상급자, 형제, 자매들이 같은 경험을 하기를 바랍니다!

추신: 녹색 피를 가진 총회참석자들을 위해: 휴식 시간 동안 개인 컵을 가져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적어도 50 개의 플라스틱 컵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칼럼

마지막 1 마일이 가장 힘듭니다.

## 동 베르나르두스

마지막 1 마일이 가장 힘듭니다. 총회가 3 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금도 우리는 마지막 1 마일을 느낍니다. 아직 정리해야 할 세부 사항들이 많지만, 바로 그런 작은 일들이 필요한 균형을 가져다줍니다.

성 클라라 수녀원의 가난한 클라라 수녀님들께서 저녁기도를 함께 바치도록 다시 초대해 주시겠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순간들은 총회 기간 동안 일과 기도 사이의 균형을

맞춰주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당시 비서였던 라파엘 신부님과 함께 복자 마리-조셉 카산 신부님의 무덤을 순례한 직후에 이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신부님의 무덤 앞에서 저는 총회를 신부님의 전구에 맡겼습니다. 특히 모든 것을 완벽하고 잘 준비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마지막 단계들을 말입니다. 그분이 총회에 대해 걱정하셨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마리 조셉 카산은 작은 일에는 위대하고, 비범한 일에는 평범한 사람이었으며, 진정한 희망의 순례자였습니다. 그의 무덤에 섰을 때, 그의 수련 스승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Ayez confiance! Je vous aiderai à aimer Jésus"(자신감을 가져라! 내가 네가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도울 것이다). 총회를 목전에 둔 지금,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울려 퍼집니다. 이 총회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소망입니다!



### 클라우드 연결

#### *카산트 형제 (라와세냉)*

오늘날 인터넷 연결은 인간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서거 소식이 새로운 예입니다.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은 즉시 애도했습니다. 그 이후 모든 신자들은 성 베드로 대성당에 관심을 기울이기 위해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 수도회의 이러한 현상은 작년 칠레에서 열린 중앙위원회 회의 결과와 일맥상통합니다. 올해 총회에서는 클라우드 연결 채널을 활용하여 수도회 회원들과 공동체 간의 소통을 증진할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는 코로나 19 이전인 2017 년 총회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총회에서 촬영된 많은 사진들이 특별 웹사이트에 업로드되어 각 공동체에서 다운로드하여 볼 수 있었습니다. 저와 라와세냉의 동료들이 총회가 어떤 모습인지 직접 볼 수 있었던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다가오는 총회에서 시작된 활동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총회 개막 및 폐막미사는 생중계될 예정이며, 추후 녹화하여 시청하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른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클라우드 팀의 존재가 우리 수도회의 모든 구성원을 하나로 모으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우리 공동체가 더욱 하나가 되고, 엄준 시토회, 트라피스트회,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하나의 정체성을 인식하도록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연구 문서에 관하여

#### *동 라파엘 (오이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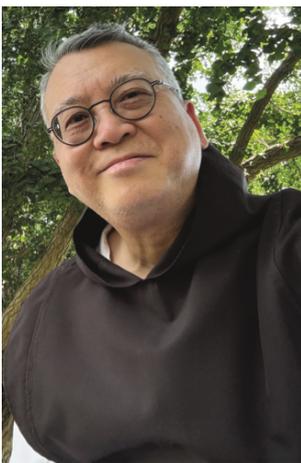
지난 20 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수도회는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까? 예를 들어, 단일 총회 설립, 수도자 및 수녀 봉쇄(enclosure) 법 제정, 그리고 다음 총회에서 논의될 주요 주제들, 즉 비성직자 장상 및 직계 수녀원장 수녀 가능성 등은 지난 총회에서 다루졌던 수많은 문제들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일부 주제들은 여러 총회에서 다루어지고 20 년

이상 논의되어 왔습니다. 연구 문서들은 동일한 의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준비되었습니다. 각 문서에서 당시 직면했던 문제들, 전임자들의 갈등, 심지어 그들이 느꼈던 불안감까지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투표 결과, 회헌, 그리고 개정된 회칙에 반영된 논의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임자들이 그 지점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논쟁과 불확실성, 그리고 투쟁을 겪었을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연구 보고서가 이러한 논의의 기록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이 우려와 어려움을 극복해 온 용기와 인내는 지난 총회의 연구 보고서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불굴의 의지는 연구 보고서에서 빛을 발하며, 저는 그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다음 총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연구 자료가 작성되었습니다. 이 자료들은 2025 년 총회에 참석할 회원들과 각자의 수도권에서 이를 지켜보는 공동체 구성원들을 돕기위함이고, 동시에, 이 자료들은 10 년, 20 년, 심지어 90 년 후에도 읽혀질 후임자들을 위한 문서이기도 합니다. 우리 미래 세대는 2025 년 총회 자료에서 분명 무언가를 배울 것입니다.

시토회 생활에서 매 순간은 새로운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은 매 순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제가 수도 생활에 입문했을 때 오해했던 것은 이것이 죽을 때까지 지속될 안정적인 삶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시토회 생활이란 끊임없는 변화와 끝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불안정성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새로운 도전에 맞설 수 없습니다. 연구 자료는 우리가 직면한 문제, 걱정, 그리고 딜레마를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도와줍니다. 걱정과 긴장감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께 자신을 내어맡김으로써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상황이 더욱 위태로워질수록, 우리는 더욱 자신을 내어맡기고 그 위태로움 너머의 희망을 발견합니다.

클레르보의 성 베르나르도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개념은 사물을 명확하게 하지만, 감정은 경험을 풍부하게 한다." 연구 보고서는 우리가 직면한 도전을 명확하게 하고, 총회 경험은 우리를 풍요롭게 합니다. 그리고 연구 보고서는 그 자체로 감정의 원천입니다.



### 총회가 지닌 영적 차원

#### **동 아나스타시우스**

성령의 영감을 받아, 각 지역에서 듣고, 중앙위원회에서 분별하고, 실천하는 우리 총회는 영적 차원에 주의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물론 총회는 입법적, 사목적, 그리고 영적인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려는 것은 총회와 위원회 회의의 시작과 끝에 기도 리본을 다는 것처럼 형식적인 절차와 기분 전환을 위한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3 주 동안 진행되는 총회에서 우리 모두를 기도하는 영적인 공간(공간)에 모이게 하고, 이를 통해 하느님의 현존, 복음적 가치,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기억하게 하려는 진정한 공동의 열망과 간절한 바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묵상적인 경청, 수도권 내에서의 상호 지원과 봉사를 통해 성령과 협력하고, 우리 사이에 평화와 자선의 선을 재건한다는 것을 부드럽지만 열렬하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자선 헌장 7:2).

## 지역 양성비서 회의

### 동 알베릭(스키에르모니쿠)



전 세계 11 명의 지역 양성 비서들이 2025 년 6 월 발세레나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작년 칠레 중앙위원회에서 제안한 우리 수도회의 양성 계획을 함께 다시 검토했습니다. 이 양성 계획, 즉 Ratio Institutionis 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놀랍고 귀중한 설명과 지침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 그룹과 함께 이처럼 포괄적인 문서를 작성하게 되어 기쁩니다. 현재 문서는 1990 년에 작성되었으며, 그러한 문서를 작성하려는 최초이자 성공적인 시도였습니다. 2025 년에는 라디오의 많은 부분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이 기회를 통해 오늘날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우리의 제안이 앞으로 있을 총회에서 좋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저희 공동체에 대한 저의 소망

#### 알레드 형제(코푸아)

저희 공동체에 대한 저의 소망은, 우리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아오테아로아-뉴질랜드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희망의 순례자로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와 더욱 깊은 믿음, 희망, 그리고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수도회의 모든 수도승과 수녀들이 최근 총대수도원장께서 수도회에 보낸 서한에서 권고하신 끊임없는 기도의 카리스마를 더욱 깊이 받아들이고 실천하여, 이 깨어진 세상에서 하느님 백성의 선과 복지를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에 더욱 헌신하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 총회: 시노드성의 학교와 희망의 학교

#### 안토니오 형제(라마나비)

저에게 2022 년 9 월 총회는 시노드의 학교입니다. 비록 처음 참석했지만, 저는 받아들여지고, 참여하며, 적극적으로 나누고 질문하도록 격려받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수도회의 선을 위해 무언가를 생각하고 실천해야 할 책임을 공유합니다. 더 나아가 2025 년 총회는 저와 형제들이 같은 희망을 품고 함께 적극적으로 걸어가는 희망의 학교가 될 것입니다. 신앙의 기쁨과

사랑의 진실함을 안고 아시시로 돌아갑시다. 우리의 기쁨과 슬픔이 어떠하든,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희망은 항상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M. 마리 앤 (쿠남베타)**

총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시토회 생활을 살고자 하는 열망에 뿌리내린 경험입니다. 또한 우리를 창의성으로 초대하는 열린 마음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제 안에 울려 퍼지는 것은 일치와 다원주의입니다. 시토회 카리스마가 다양한 공동체, 나아가 다양한 문화 속에서 어떻게 실천되는지 보고 듣는 것은 풍요로운 경험입니다.

저는 경청, 주의, 경계, 그리고 창의력이 우리 수도회 안에서 더욱 활발하고 생생한 현실이 되어, 성령께서 오늘 모든 이의 선을 위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끊임없이 마음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총회 경험**

**데이빗 형제 (스펜서, 나스 상주사제)**

아마도 다가올 총회가 제 마지막 총회가 될 것 같습니다(77 세!). 1996 년 총회에서 일본인들을 위한 "초보" 통역으로 시작해서, 그 이후로 통역이나 총평의원으로 총 10 번의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세 명의 총대주교는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남아 있는 인상은 수도회의 모든 승려와 수녀를 대표하는 총회가 가진 힘입니다. 총회는 관상 수도회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결코 의심하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쇄신과 적응을

이끌어 왔습니다. 전 대륙의 수사, 수녀들과 함께하는, 때로는 고통스러웠지만 솔직하고 열린 위원회 활동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총회가 만든 조직은 종결을 필요로 하는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와 협력하여 합류하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수도원을 알고 있기에 지원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 총회에서 리더십에 대해 제가 처음 받은 인상은 경험 많은 수도원장들의 설득력 있는 개입이었습니다. 수녀들은 수도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면서 점차 더 큰 영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새로운 교회들에서 새로운 수도원들이 늘어나는 모습은 미래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도전들은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미지의 바다를 헤쳐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파스카 신비의 은총에 의지하여 불가피한 종식과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탄생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직속 신부의 존경받는 구조와 자율성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구조들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조정하여 우리 모두를 위해 봉사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역사는 수도원 생활의 진정한 쇠신이 성령의 은총으로 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구조의 변화의 필요성은 사람들의 내적 회심과 쇠신이 동반될 때에만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 총회를 위한 기도

**M. 카타리나 (마카오)**

전능하신 하느님,

다가오는 총회를 위해 당신의 인도와 축복을 간구하며 겸손히 당신께 나아옵니다.

당신의 성령께서 모이는 모든 이에게 영감을 주시고 인도하시며, 일치와 사랑의 정신을 함양하게 하소서.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향한 당신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에서 그리스도를 충실히 따를 수 있도록 하소서.

총회 모든 구성원에게 힘과 건강, 그리고 깊은 믿음을 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하소서.

이 총회가 수도생활의 쇠신과

당신의 은총을 세상과 나누는 지속적인 사명을 위해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총회가 이룬 결과를

시토의 여왕 마리아의 전구와

당신의 사랑 어린 보살핌에 맡기며,

당신의 신성한 계획을 신뢰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해 간구합니다. 아멘.

### 유머

미사가 끝날 무렵, 신부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중 누가 원수를 용서했습니까?"

앞줄에 앉은 한 노인을 제외하고 성당 안의 모든 사람이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왜 원수를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신부가 물었습니다.

"저는 원수가 없습니다."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신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의 나이를 물었습니다.

"저는 99 년 11 개월입니다."

모든 신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신부는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그렇게 늙었는데 원수가 없다고요?"

이에 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 죽었어."

## 일부 지역 보고서 발췌



현실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종합해 보면, 희망의 조짐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24 년 ORIENS D. Francisco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취약성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령화된 공동체의 취약성과 연약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지만, 젊은 공동체에도 취약성과 연약함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법칙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태어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포용'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공동체가 각 구성원의 연약함을 수치심 없이 포용할 수 있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그분의 상처를 통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공동체 안에는 어쩌면 쇠신의 희망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타인의 상처는 우리의 상처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고통받고 싶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오는 고통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자매님은 힘들어요." 또는 "이 자매님 때문에 공동체가 너무 힘들어요."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상처를 포용하는 문제는 젊은 세대에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족과 사회에서 비롯된 상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2024 년 ORIENS M. Giovanna



우리 수도회는 보편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마찬가지로 연약하고 취약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성소와 새로운 지도력의 부족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도회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우리는 카리스마를 재건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 과정에 임할 때 이 점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돔 베르나르두스 신부님께서 오순절에 보내신 회람은 우리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과 협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파스카 신비를 실천하며 살아갈 때, 부활 안에는 항상 희망이 있습니다.

**2024 년 USA 지역 보고서**